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경리010.6677.4023/미선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66번째 이야기]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네 /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수 있는 건 /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 신실한 주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마커스 주 손길이 중)

동역자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이곳은 벚꽃이 만개하여 꽃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초록 잎이 가득합니다.
예배당 창문 넘어 보이는 푸르름으로 저희 사역 이야기를 전합니다.

(1) 유아 세례식

담호(영아부)가 유아세례를 받는날, 세례식 하는 동안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많이 웃어서 온 교우들이 더한 기쁨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담호가 태어난 후 아이 아빠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교회에 더 마음을 붙이고 있습니다. 담호가 이가정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믿지 않은 할머니도(담호 할머니) 함께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2) 주오네 가족

주오형제를 통해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방법을 구할때 이혼의 위기와 재정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꽃배달을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도우미로 일하시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군 전역과 성인이 된 교회학교 자매들

벌써 군 전역을 하고 찾아온 청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느라 분주하고 바빠서 주일 예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공부하느라 나오지 못하던 자매들도 아가씨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함께 지난시절의 감사를 나누며 비전들을 쏟아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도 직장생활과 환경의 벽을 뚫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깊이 모시며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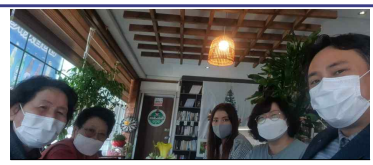
(4) 식료품 배달(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배달하는 시간은 언제나 가슴이 뛉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그려가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서 장을 보는 시간속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세명장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찾아 뵐때마다 좁은 공간에 담배연기가 가득합니다. 혼자 식사도 잘 챙기지 못하시고, 잘 씻지못해 발과 손에 굳은살과 때가 꽉 차있습니다. 어느날은 무릎이 아프다 하시기에 발과 종아리를 주물러 드리는데 발과 손에 굳은살과 그분의 가슴속 굳은 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제거 될 것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운둔생활의 어려움들로 밖으로 잘 나오진 못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찾아뵐때마다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로 나오길 기도합니다.

(5) 코로나 확진

막내를 시작으로 가족 4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확진 되지 않아서 실시간 예배로 주일을 지킬 수 있었고 아이들은 무장하고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방송 장비를 조정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서 가족들 식사를 못챙길까봐 걱정하시며 많은 분들이 현관 앞에 음식 보따리를 놓고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희 가족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6) 동주네 가족



7살에 만난 동주는 벌써 중학교2학년이 되었습니다. 동주를 통해 누나가 교회에 나오고 두 달전 할머니도 교회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집 근처 교회 다니시다가 오랜 방학 끝에 저희교회로 나오셨는데 찬양 할때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지난주 심방 때 꽃을 선물해 드렸는데 소녀처럼 좋아하시며 댁에있는 작은 정원을 자랑하셨습니다. 손00 성도님이 노년의 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평안함속에 살아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과 만날 때마다 딸(동주엄마)도 만나고 있는데 딸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7) 노숙자

세 아들과 함께 노숙자 할아버지들 드릴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데 아들이 왜 주느냐고 묻습니다. 그 누군가는 해야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열심히 주머니를 만듭니다. 마스크, 물티슈, 간식, 커피, 종이컵,주기도문,전도지.. 가 들은 주머니를 건내며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분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배가 안고프냐고~ 그분들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천국을 전할수 있으니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또 어떤분은 교회에 오셔서 김치와 밥을 싸달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 밥을 그릇에 담는데 밀려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시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들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할수있는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앞에 꼬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먹이는 저희 부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코로나로 인해 쉬었던 주일 오후 예배를 5월 15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 오후 말씀공부와 주중 말씀공부 그리고 학습세례입교문답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 교회 성도들 가정과 지인들 중심으로 관계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전도 대상자들과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5. 학교 방과후에 첫째는 기타, 둘째는 드럼과 피아노, 셋째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